



## 머리글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 찬미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 데 이미 한 달이 지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은 교정시설이 방학이라 좀 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더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방학이라해도 사회사목국 연수, 기쁨과희망은행 워크숍, 한국가톨릭교정협의회 총회, 봉사자 피정, 창업준비센터 개관 준비 등등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낸 시간이지만 쉴 때는 드라마도 보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람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겨 있어, 같이 웃을 때도, 같이 아파할 때도, 같이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 사연 하나하나가 내 얘기 같고, 우리 이웃들 얘기 같아 더 그런가 봅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눈을 가진 교사와 의욕이 넘치는 새내기 교사의 모습이 겹치면서 떠나는 교사가 남기고 간 한 장의 카드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입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이 글을 보며 참 가슴을 아리게 하는 아름다운 말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의 출처가 궁금해 찾아보니, 시인 이채 님이 쓰신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2014년)라는 시집에 나오는 동명의 시였습니다.

“입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없으니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저는 2월을 살아가면서 이 시를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입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제 마음부터 곱게 꾸며, 모든 사람을 꽃으로 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후원회원 여러분 모두 이번 2월 한 달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이시길 기도합니다.

## 돈암동 성당 대림 특강



2019년 12월 17일(화) 돈암동 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소개하는 대림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벌금을 내지 못한 차상위계층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했지만,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 바로 퇴원하고 교정시설에 갇혔다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중범죄자들도 많지만, 생활고로 인해 수감 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주변을 깊게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면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진, 공원 벤치 중간중간 올라온 낮은 손잡이 등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는 소외된 이들을 배려한다며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어 사회에서 내모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당의 많은 신자분이 참석하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림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2020년 1월 6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해 주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살 수도 있다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불만을 내뿜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작은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1월 7일(화)~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주제로 겨울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년! (하느님의 모상), 선한 사람(착한 사마리아 사람), 맡겨진 사람 (불충실, 충실한 종), 좋은 사람이라는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40여명의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신앙학교를 준비하고 함께 해 주신 살레시오회 신부님과 수사님,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



1월 8일(수) 해화동에 위치한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최승정 신부의 성경을 통한 ‘죄와 벌’, 이영우 신부(前 위원장)의 ‘가난과 교정’, 현대일 신부의 ‘교정사목 봉사자의 자세’ 강의와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의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인해, 2020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1월 9일(목)~11일(토)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를 비롯한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김도훈 라파엘 신부, 운영위원 6명과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업 분야 운영위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넓힐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

김연유 율리아\_ 2019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생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과의 대화 속에 흘러나왔던 교정사목이란 단어가 왠지 나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진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며 나의 발길을 돌려보았던 곳. 지인과 헤어지며 나의 손에 있던 전화기는 어느덧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찾고 있었다.

접수가 끝나 실망 속에서 한해를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자매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 “김연유 율리아 자매님이시죠? 작년에 전화문의 남기셨던 교정사목입니다. 교육이 시작되어 안내 전화드립니다.” 순간 “네, 지금 바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님의 부름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응답이었다. 꼭 등록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있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다른 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하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보잘것 없는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일 새로운 일자리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할 뿐이었다. 어떻게 나에게 채워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제한된 구역에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경이에 찬 어린아이처럼 떠돌이하는 마음으로 교정사목 센터로 향했다.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붉은 벽돌과 굳게 닫히는 강한 강철의 문을 지나 단절된 작은 공간에서 흘러넘치는 정보와 꿈과 같은 IT의 편리함도 잊은 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복잡했던 나의 머리는 조용히 수그러들며 그들의 마음속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관심만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 느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들을 대한다면 이들에게도 성령의 사랑의 불꽃이 이끌어 이들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평 반만 한 작은 공간, 두 다리 뻗고 누어 양팔 벌리면 닿을 듯한 벽 사이에 갇춘 것은 오로지 세면도구와 노트 하나와 식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와야 하나’하는 생각만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해지며 하느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욱 강하게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또한, 이렇게 찢값을 치르고 있는 동안 이들이 피해자를 생각할까?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마음.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사건 후에 생기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전달하는 봉사자가 된다면 이들 또한 사랑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하느님의 은혜

17기 창업 대출자 티모테오

저는 3명의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2017년 교도소에 수용되었었던 출소자입니다.

돌봐야 할 가정을 두고 죄의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어 2년에 가까운 수용 생활하였습니다.

저 자신의 육체와 가정, 사회 전반으로 죄악이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의 재범까지 저지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잘못을 겨우 뉘우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교도소 수감 중, 천주교 집회의 미사와 교리 수업을 받고 성경 필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회교정사목회에서 주최하여 출소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길을 열어주는 기쁨과 희망은행을 알고서였습니다.

제가 죄값으로 교도소 수용 중일 때 위태로운 저의 가정이 걱정되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교님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님 앞으로 도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혜’는 천주교 신자님들의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고통 속에 있던 저의 가정에 방문하여 격려를 전해주시고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는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하여 좌절한 저에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창업교육으로 용기를 주셨으며 조건 없는 창업대출자금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차가운 어둠이 연속되던 삶에서 헤어나와 이제는 성장하는 자녀들과 저 또한 성장하며 열심히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톨릭 신자님들을 통하여 입게 된 은혜라 믿으며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의 사제님들과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님들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잔미 예수님!

선유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 했던 2019년도 다 가고 이제 여정 새로 앞섭니다.

신정사목 40주년 기념이사를 드렸던게 바로 잊고계 같은데 새월이  
작 빠르 것 같습니다.

신정사목 50년 여사 속에는 수많은 사역과 함께 저의 25년의 성장기도  
오롯이 함께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처럼 감동살아가 주님 다함으로 흥쾌한 일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 들어 온 사랑들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으로 보면 감동은 저인들이 볼 만할 듯이만.

자녀의 사신으로 인해 인구의 산업을 한층 영적 향아 입니다.

또 사랑과 인종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왔어진 그곳에 온전히 평안이 내려옵니다" (로마 5:20) 라고

나사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감동은 자니를 만나기에 비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 영혼이 저로써의 자위로써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저의 영혼을 바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육에 전히하시고 십자가목에 달려셨습니다" (1842:2-24)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 일것입니다.

우리가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꾼다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니를 우리가 전례로 깨치고 주시했을 때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당신을 더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사 모든 죄악을 알고 절망 상태에서 고통을 내면 기다리고  
있을 때 자니가 오셔서 다가와 주십니다.

만약 그때 하느님이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저를 위한  
 사랑과 성의를 알지 못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저에게 저를 위한 비참한 영혼으로 주님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뜻이해 내면 제가 교정사육 광동제 안에서 살아 온 것은 모든 것을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이 그루터기에서 영혼이 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다" (이사 11:1)  
 이런 제 인생의 그루터기에서 선민의 영혼이 돋아나고 권능의 뿌리가  
 새로 자라고 있으니 기적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생의 모든 날들도 신성사육 가족과 함께 깨달음을  
 향한 영혼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교정사육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선민과 교정위원  
 한민족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조한지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최고수 형제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을 축하하는 편지입니다.  
 50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20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및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9차 정기총회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3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전 10시부터는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금년 정기총회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지난 1년, 또 앞으로의 1년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더불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후에 이어서 후원회원 월례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00~12:00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9차 정기총회	10:00~11:00
후원회원 월례미사	11:00~12:0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2/13~1/12)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는 강태석, 김수경, 박건순, 박길선, 성미경, 손현정, 이혜란, 임응수, 장수정, 최순택, 카타리나, 태신선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알림

- 2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2월 8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2월 21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0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2월 22일(토)~23일(일) 창5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창5동 성당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